

SEP 24 1966

# 태평양주보

##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발행소	동지 회중앙부 931 노스킹.스트리 호놀룰루.하와이	Publisher Address	Korean Dongji Hoi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감 주필 권좌 발행료수 발행일	미정근 김장원 850-849 1609 음력 구월 9일 금요일	President Editor Phone Subscription Number Date	Chung Keun LEE Donald C.W. KIM 850-849 \$10.00 per year 1609 Sept. 23, 1966: Fri.

### 비에트남 화평에 신제안

#### 북쪽이 동조하면, 미측도 북쪽을 증지

(뉴욕9월22일반, 에이 피) 글드버-그 미국헌수석대토는, 22일의 국련총회본회의에서 일반론은 언설을 하고, 비에트남문제, 중국대표권문제, 우.란트 사무총장의 사임문제 등에 대해서 언급 하였는데, 비에트남문제에 대해서는, "북비에트남이 비에트남 전쟁의 확대방지에 대해서, 미국에 동조한다면, 미국은 북비에트남 목적을 증지하고, 비에트남 주류군을 단계적으로 철퇴시키겠다" 라고 말하고, 미국의 비에트남 화평에 대한 태도를 명백히 하였다. 글드버-그 대토의 언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비에트남 문제

1. 미국은 비에트남전쟁을 군사적으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결할것을 희망하고 있다. 북비에트남이 군사적 해결을 강요한다면, 이에 대항한다. 미국의 비에트남에 있어서의 목적은 남비에트남국민이 국련연장이 규정하고 있드시, 모든 목적으로부터 예방되며, 자결의 권리를 갖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비에트남의 통일은 외부의 간섭없이, 남북 양비에트남국민의 자유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한다. 미국은 남비에트남에 군사기지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려고 생각 하고있지않다. 또 미국은 남비에트남에 미국적의 통령을 강요하고 싶은 의사도 없다. 우리는 비에트남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신성한 전쟁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1. 북비에트남정부가 공시, 비공시를 불지안고, 어떠한 길을 통하여서든지 비에트남전쟁의 육소에 대해서, 미국에 동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 미국은 언제든지 스스로, 북 비에트남 목적을 증지하고,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퇴시킨다.

1. 비에트남 화평에 입석하는 미국의 태도는 유연하며, 비에트남의 화평고심참가도 극복할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 우.란트 사무총장의 사임문제

이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우.란트 사무총장이 사임하는 것은, 국련에만이 아니고, 세계평화에 대한 큰 손실이다. 우리는 우.란트 사무총장이 국련제국의 입지된 요망을 받아들여, 유입안정을 열망하는 바이다.

#### 중국대표권 문제

미국은 중공의 가맹에는 어디까지나 반대이다. 국민정부는 국련창립이래의 가맹국이며, 그의 국련에 있어서의 권리는 확실하다. 국부를 추방하고, 그 대신에 중공을 가맹시키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중공은 국련을 국련 입장을 목적에 반대된 방향으로 변형시키려고 하고있다.

NEWSPAPER  
STACKS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 최대의 공중전 전개 미구 2기 격추

(사이곤 22일밤, 에이 피) 미군사령부의 발표에 의하면, 미군기는 21일의 북비에트남공격에 있어서, 공산측의 미구전투기와 8회에 걸치는 비에트남전쟁 최대의 대공중전을 하노이 북동상공에서 전개, 미구 17형 2기를 격추, 또 미구 3기를 격파하였다. 이 공중전에서 미군기에는 손해 손실이 하나도 없었다. 21일 2기를 격추한 결과, 미군기가 북비에트남 상공에서 공중전에 의해 격추한 미구기는 합계 21기로 되었다. 공중전에서 격추된 미군기의 수는 5기이다. 21일의 공격에서는 미군기가 121회에 걸쳐 출동, 대공인지, 철도, 극도에 큰 손해를 주었다. 이날, 태군의 예스40비 웨임, 공군의 예스105산다지-으 각기가 지상도파에 의해, 격추되고, 미군이 북비에트남 상공에서 일은 비행기의 수는 합계 370기가 되었다.

### 중간선거후에 증세 기능. 쥘슨대통령 답

(워싱턴 9월 21일밤, 에이 피) 쥘슨대통령은 21일, 백악관의 각의실에서 기자단과 회견 "나는 증세가 가까이 잇스리라든 것을 시사한 일은 없다. 현재의 예산으로 내년 6월까지, 비에트남 전쟁비를 충당하는데 충분하다. 모든 지출범인이 의회를 용격하누, 세입과 균형이 취해질지를 짐작한다" 라고 말하였다. 정부예산의 지출과 세입의 균형을 보지하는대는 증세에 의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따라서 쥘슨대통령의 언명은 주일 증세를 요청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11월 8일의 중간선거 이전에 증세의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 법왕의 화평 호소를 전면 지지

또 대통령은 이 기자회견에서 비에트남문제에 대해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미국정부는 비에트남에서의 진주가 성공하고 있는데 만족하고있다. 미국은 전쟁을 계속하는것 보다 화평을 고집하고 싶다. 그러나 침략자가 진주를 계속하고, 화평고집을 거부하는한, 전쟁을 그만 둘수는 없다. 북비에트남이 화평고집을 제안하고 있다는 징조는 없다. 소련은 화평고집의 실험을 이망하고있으며, 그의 입장은 변하지안었다고 본다. 동 범왕의 비에트남 화평 호소는 전면적으로 지지한다.

### 북조선으로부터 13명이 일본으로 망명

(기다 류슈 17일밤, 공동) 17일오후, 시모노세끼 해상보안소에 "북조선으로부터 망명하고 왔다. 여기에 망명시켜 달라" 라고 한 남자가 출도하여왔다. 동보안소는 이 사람의 보고에 의해, 어항에 잇은 146촌의 어선의 선내를 수색 한바, 북조선인 12명이 라고 잇섯기때문에 출두한 사람과 함하여, 13명을 밀입국의 혐의도 체포하였다. 그런데, 그중 4명이 "우리는 일본에 망명하기 위해, 동승하고잇은 권언 7명을 선내에서 죽였다. 또 망명에 동조하지안잇은 9명을 선내에 감금하여 다리고왔다" 라고 자백하였다. 동보안소는 사건을 중시, 감금되엇다는 9명을 건내어 잡아두고, 망명을 구한 4명으로부터 더 자세한 사정을 뜻고있다. 선내부서는 소련제 자동소총 1개, 소총 2개, 경기관총 1개와 자동소총의 실탄 6 상자를 발견 압수하였다. 망명을 구한 자는 동선의 부선장 장대점 (26세), 부기 관장 민강대 등 4명으로, 사건의 내용을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동선은 단 배 한척과 7일 정오정, 북조선 신의주를 출발, 동양 부근에서 조업하고 잇섯다. 12일에 어장을 이동하고 잇는중, 단 배와 떠러져 버렸다. 이때에 4명이 "공산주의를 따를수 업스니 망명하자" 라고 제위하고 일본에 망명의 기회를 노렸다. 익일인 13일 새벽, 자동소총, 경기관총등을 끄내어, 동승하고 잇은 북조선정부의 권언 7명을 죽이고, 시체를 산동반도에서

(제2편으로부터 계속)

때중으로 집어던졌다. 또한 9명은 공산주의에 동조하고, 일본어의 명령을 거부하였기때문에 9명을 무기모 위험하고, 선내에 감금하고, 시모노세끼로 향하였다.

### 일본화물선을 한국이 억류

(서울 21일밤, 공동) 일본의 일화물선이, 선원파악지 억류되었다는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하였다. 21일 부산으로부터의 보도에 의하면, 부산지방검찰당국은, 동일오류 일본의 화물선 "다이 이찌 무로도 마루" (330톤) 를 전기통신법 위반의 혐의로 억류중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동지방검찰당국의 말로는 19일 오후 8시경 동화물선이 한국남해의 용영, 거제도간을 항행중, 매저에 가납되어있는 해상권외선 620 미터를 절단 파손하였다고 한다. 검찰당국은 이를 불법파손이라고 하여, 전기통신법 위반을 적용, 선원 4명과 동 화물선을 강제 억류한것이다. 또 일본의 선박이 한국의 재산을 파격한 혐의로 선원, 선박이 억류된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 한국내각총사직 밀수사건을 둘러싸고

(서울 22일밤, 예이 피) 정일권수상을 수반으로한 17명내각이 오늘 총사직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직을 수락할는지 또는 거부할것지는 오는 24일까지 알수없다. 총중청공보 장관에 의하면, 전내각이 총사직을 결정한 원인은, 한국국회에서 만수성거리가 되어있는 밀수 사건에 대한 오의중, 국외부의장이 수상을 포함한 5명의 내각원에 "똥을 뿌리고, 특육과 특행을 하였기때문에 위신을 손상하게 되어서 마고 한다. 한국의 제일 자본가인 리병철씨를 둘러싸고 생긴 이 밀수사건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문제가 되어있다. 리병철씨는 일본으로부터 11만1천불까지의 "사카린"을 무세의 건축자로라고하여, 비로외사를 통해서 밀수하여 왔는데 이것이 발각이 나서 문제가 되고있다. 정일권수상은 박정희대통령을 권고로 찾아가 전내각의 사표를 제출하였다. 대통령의 측근자의 말에 의하면, 국회의 사법분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무책임 짓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처단을 하여야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일 모음을 갖게되었다고 한다. 그후에야 대통령이 이 내각의 총사직을 수락할것인지 거부할것인지를 결정할것이라고 총 측근자는 부언하였다. 한국통일당의 국회의원 김두한씨는 단상에서 성명을 언다음, 가가이 인저있는 장관들에 한층의 "똥을 더부었다. 서울 뒷 골목의 불탑때 대장이었던 김두한씨는 지난 11월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김두한씨의 돌연한 행동에 모두 놀라서 침묵이 계속되었었다. 그후 국회의원들이 분노의 고함을 질렀다. 그래서 국회는 휴회되고, 장관들은 똥을 싣느라고 외장으로부터 외장하였다. 내각의 장관 몇 사람은 이 밀수 사건에 공모하였다고 하여, 비난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만수성이 일어나고 있었다. 국회에서 이러한 소란이 있었고, 또 내각의 총사직이 있은후, 이 밀수사건의 주범인 리병철씨는 자기의 비로외사를 나라에 바치고, 자기는 인회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한신문의 발행인이며, 에페비존, 테이디오 방송국의 권부취재역이며, 또 두 대학의 재단장이다. 정일권씨의 17명 내각은 1964년 5월에 취임되었는데, 내년 봄에 도착오는 총선거후까지,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있던것이다. 야당인 민정당의 김대중의원은 오늘의 국회의사건행중, "내각을 이 밀수사건의 책임을 지고 총사직하지안으면 안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이 밀수사건은 단지 정부의 대재벌을 일으키고, 초기 회폐를 만삼하려는 경제정책의 부산물에 지나지안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 한국대표야구단 귀국소식

한국대표야구단이 하와이에 원정을 와 캠프의 고배를 마시고 귀국한것은 기보한 바이거니와 동야구단은 귀국후에 다음과같은 인사 편지를 동지회로 보내왔다.



통지회 회장 귀하

한국대표야구단 귀국 인사 말

이제 만리 타국에서 조국의 긍지를 갖고 모국의 번영을 기원하고 계신 귀하와 재미교포들에게  
 중심으로 정의를 토하나이다. 지난 8월하순 귀지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  
 한 본인과 우리대표선수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하와 교포들의 뜨거운 환대와 성원에 대하여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들 주위에 귀하의 열렬한 성원의 입김이 가시지 안하  
 으못한 기분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교포들의 따뜻한 성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이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함대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패배를 고혼으로  
 삼아 내일의 승리를 갖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정신으로서 하루 밤리 명예 회복에 전진 함  
 각오입니다. 뜻으로 본인은 귀하와 재미교포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귀하의 주위에 신의 가호가 잇기를 빌며 아울러 본인의 인사를 여러 교포들에게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1966년 9월 2일

세계야구선수권대회 한국대표단 단장  
대한 야구협회

회장 김중락 인

사실.... "동아의 번영—한.일의 자주" (전주오로부터 계속)

재산 즉 사산계급을 저주하지만, 소련 혁명이 50년이요, 중국에 공산당이 조직된것이 49년이나  
 된 오늘에도 이 공산국들이 자유사산국에서 양식을 구입하여 기갑을 면하고잇스니, 공산에도  
 수출 조류가 잇거니와, 사산국가에 잇는 지식본자에게도 수출것이 불소라니, 재산계급과 지식계급  
 인들의 용처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독립선포중, 두 가지 조건은 세계 지식계급의 행복을  
 받는 조건이다.

일본과 중공의 관계..... 일본의 공산당은 회원이 24만명이요, 정치계에는 상의원 250명중  
 공산당출신이 4명이요, 하의원 457명중 공산당출신이 4명이라고 한다. 소수이지만 항상 친미  
 정부를 공격하고, 중공과 관계를 친밀해 왔는데, 금월 초순에 돌연히 전국각처 공산당구역에  
 명령을 내리, 중공과 관계를 단교, 모택동의 사진을 때어치우라고 용고하였다. 그리고 기관  
 신문에 날마다 동재하던 북경 소식을 일체로 금지하였다. 북한과 일본공산당이 중공과 관계를  
 단절한것은 모택동의 정책을 반대하는 증거이다. 일본의 사이도 정부는 아세아의 명화를 위해  
 여여 방편으로 활약하고 잇는데, 일본공산당은 북경에 내왕하며, 중, 소 공산당의 화해를 노력  
 하여 왔다. 그러나 모택동은 번번히 이를 거절하여 왔고, 회의때마다 소련을 제외하고도 7억만  
 인민이 잇스니, 이들로만으로도 미.소와 대적할수잇다고 버텨고 고집하니, 이도 말미아마 일본  
 공산당의 입지가 변하여, 사회민주주의로 기우러지고, 평화중공의 방향으로 기우러진것 같다.  
 일본공산당은 소수이며, 또 40만에 불과한 북한의 공산당도 소수이다. 수백만에 달하는 중공과  
 그러저도 친밀하면 북한과 일본의 공산당이 중공과 모택동을 일시에 배척하니, 그 영향이 아세아  
 대중사상계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세계대전을 치른후, 천하 만민이 모다 명화를  
 원하는데, 모택동 만이 홀로 상부주의를 고동하고 잇는 것이다. 공산, 민주 주의로 갈라진  
 남 북 한국이 민족주의와 동포애로서 합하여, 자주 독립국이 될 가능성도 잇는 것이다.

내주로의 사실은 "민주혁명과 용위군"



## 상업광고

### 조필리 꽃 전방 PHIL'S FLOURIST SHOP

결혼식에 필요한 꽃다발 ..... 그리고 아름다운 화환 .....  
장례식이나 병원시방, 손님 봉별 영접에 필요한 화환, 레이, 꽃 바구니  
미국에 보내시는 꽃은 항공수송을 위한 포장도 하며, 여러분의 편리를  
위해 특별히 좋은 "서-비스" 를 해드립니다.  
주소는 201 남.비니아드. 거리 (사센드럴.인러미디엇.스플 마진 편의 4 층  
사센드 건물 1 층에 있음)

201 So. Vineyard Street  
Telephone 501-976

### 보-스윅 장 의 소 BORTHWICK MORTUARY, LTD.

1330 Maunakea Street  
Telephone 513-566

본 장의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특별히 동지회오상부원 과 또 한  
한인계에 가장 특별히 "서-비스" 를 하여왔으며, 또 한 앞으로도  
그렇 러입니다. "서-비스" 라면 주야와 종우를 가리지 않고, 또 한  
원근을 편계치않고, 제반 수속을 다 해드립니다.

미스러 양 의 사택 전화는 94177

### 씨티 뱅크 어브 호놀룰루 CITY BANK OF HONOLULU

여러분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밖에 "씨티.뱅크" 에서는 한국은행과  
계약을 맺고, 직접 한국으로 돈을 부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서울본점과  
부산 지점, 그리고 여러 지점으로도 돈을 부칠수 있어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씨티.뱅크" 는 필.스트리트 과 리차드.스트리트 모퉁이에  
최근대식 대 건물을 신축하고, 여러분의 각종은행사무와 순환의 편리를 도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60-811 이며, 문의하실 일이 있으시면, 오건창씨  
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 번호는 963-111 입니다.

